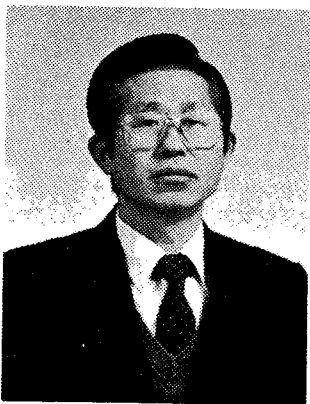


도시위생의 수준을 높이자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外國의 다수 인구가 우리나라에 몰려왔다. 비록 公式的인 대회기간은 9월 17일~10월 2일까지 짧은 2주간이나 체한기간중 주최국이 정성껏 마련한 갖가지 準備에 큰 불편없이 성공리에 大會를 마쳐야 하겠다는 것이 모두의 바램이다.

此際에 우리는 오랜 현안문제인 都市衛生狀態를 國際水準으로 제고시킬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본다.



조윤승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담당관,
대한 위생학회 회장

음용수의 신뢰성

都市 上水의 안전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1,000만이 넘는 서울市民이 항시 음용하는 엄청난 給水量은 1일 1인당 약 360리터나 되고, 그 質에 있어서도 만에 하나 어떤 이상이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水道當국은 순간의 방심없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良質의 飲用水 공급은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수원지는 都市에서 점차 멀어져가고 원수의 水質은 옛날과는 달리 오염의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며 淨水과정의 기술도 불가불 고도의 水準을 요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영비의 부담이 늘어가고 오래된 水道管은 서둘러 교체하여야 되겠다.

흔히 여행병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날씨의 변화로 설사가 나기 쉽다고 하나 이 정도는

요즈음 시내 일류호텔은 당국의 권고나 지도를 앞서가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위생시설 이며 위생적인 종업원의 태도는 국제수준에 손색이 없다.

이해할지 모른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의 전염성감염을 조심하라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생수, 약수나 가정의 우물물을 때로는 상수까지 불신하려고 든다. 그외 물맛을 탓하는 여론이 있고보면 이제는 세균이나 화학적물질의 제거는 물론 味覺을 포함하여 심미적인 면을 높이는데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수처리는 분뇨처리를 겸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市民의 하루 上水소비량은 外國에 비해서 上位圈에 속한다. 시카고의 580 리터, 런던의 158 리터를 감안한다면..., 그런데 상수소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下水량도 많을 것이고 淨水場처럼 下水도 철저한 소정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함은 周知의 사실이다.

上·下水의 보급율이 동등하면 더이상의 바램이 없을 것이나 取擇이 우선이요 버리는 사업은 순위가 뒤로 처지는 경향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분뇨처리 따로, 下水처리 따로하는 불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3國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兩者의 종합처리로 능률과 처리효과를 높이고 자랑스런 漢江의 수질을 서울圈뿐만 아니라 하류에까지 淸淨한 상태로 지속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참여하여야 하겠다.

지하에 가려진 위생

시내의 유명거리중에 명동을 빼놓을 수 없다. 근처 중앙우체국, 신세계백화점앞 일대가 심

한 惡臭에 行人들의 불평이 많다. 하수구의 악취에다 地下에 묻혀진 하수구, 하수도는 외면하기 쉽다. 준설공사도 자주해야 되겠고 下水道管도 런던이나 파리市처럼 영구적인 것으로 건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형편이 따르지 못한다. 地上의 고층건물은 그런데로 모양새를 구비한데 반하여 地下에 가려진 淨化槽와 下水道에는 충분한 투자와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에 안띄면 그만이라는 우리들의 무관심이 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에게 불쾌한 냄새를 오래도록 풍겨주고 있다.

앞서가는 호텔시설

런던市의 어느 위생검열관이 힐튼호텔을 가르키며, “저호텔에 대하여는 위생지도 할 사항이 없고 도리어 배워온답니다”라는 말이 기억난다.

요즈음 시내 일류호텔은 당국의 권고나 지도를 앞서가는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있다. 위생 시설이며 위생적인 종업원의 태도는 국제수준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위생접객업소의 경영주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은 이런 모범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보고 확인하는 편이 실제 큰 도움이 되겠다. 숙박분야 뿐만 아니라 식당, 목욕, 이·미용등의 전반적인 위생상태며 시설 그리고 접객태도를 中流 위생접객업소는 배우면서 비록 규모나 시설면은 일류호텔에 비하여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생상태만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市民의 바램인 것이다.

모든 위생시설이 그러하듯이 이용자의 바르고 위생적인 태도없이는 아무리 좋고 견고한 시설물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해충이 있으면 변명의 여지없어

1965년 東京 某호텔에서 저녁식사를 하려는 찰라 천정에서 한 마리의 바퀴가 정확히 밥위에 떨어져 달아날줄 모른다. 궁리끝에 주방장까지 모셔오게 하여 이 벌레가 불결하고도 위험한 해충임을 설명해주고 천정의 환기통에 방충망을 부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일렀다.

주방장은 몇 번이고 정중히 사과한 후 차려는 식사는 전부 가져가고 새로운 메뉴의 진수성찬으로 대접받은 일이 있다. 사정이 바뀌어 이러한 지적을 우리가 당해서도 안되겠다는 걱정이 앞선다.

기실 오래전 정부에서 바퀴소탕령이 전국에 내려졌다. 이 묘한 벌레가 맥주 향기라면 미친듯이 제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불호령이 발령된 비화가 있다. 주간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이유는 건조상태를 죽음으로 알기 때문에 야간에만 활동하는 습성 탓이다. 이외에도 부산의 바퀴(이집바퀴)는 필립핀까지 소문나 있다. 외국에 유학갔던 친구가 어느 가정의 저녁초대에 참석했다가 때마침 나타난 바퀴를 한국에서 떨려온 것으로 오해받은 일도 있다.

또다른 해충 파리가 식당에 종종 모습을 나타낸다. 6.25때 어느 외국중군 기사가 한국인은 파리와 더불어 식사를 한다고 한국동란이라는 책자에 소개하고 있었다. 당시의 전화·폐허속에 이정도는 큰 허물이 될 수 없겠지만 근 40년이 지난 이시점에 아직도 떼지어 다니는 파리를 볼 때마다 조직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

해충의 존재, 그 자체가 위생수준의 척도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자.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자

누구나 가장 급한 경우는 화장실을 찾는다. 응급처치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인 것이다. 밤·낮, 여름·겨울 할 것 없이 애용하면서 구비해야 할 시설이나 용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등한히 하기 일수다. 생각하면 인류역사 이래의 미결문제중 하나일 것이다. 그 요건이 無臭·無觀·無音(3無)의 시설구조이어야 하겠고, 다음은 물과 휴지와 화장실수(3多)가 풍부해야 하며 어린이나 노약자, 신체장애자가 지 이용가능한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모두 해결해 낸 것이 바로 수세식 양변기(좌변기)이다.

모든 위생시설이 그러하듯이 이용자의 바르고 위생적인 태도없이는 아무리 좋고 견고한 시설물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화장실과 처가는 멀어야 한다”는 말은 이시대에는 적어도 화장실만은 아쉽고 급할 때 찾는 곳이므로 분명 가까이 있어야 되며 특히接客업소의 화장실은 이제 자물쇠를 풀고 최고수준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투자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위생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환경문제에 예속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전기한 상·하수 문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환경위생부문의 기본사업임을 인식하면서, 이번 서울올림픽의 대행사를 주최하는 기회에 다시한번 都市衛生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간절히 요청된다. *